근대기 오다 노부나가 영웅상 형성에 대한 고찰*

한경자**
hanparky@khu.ac.kr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에도시대의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
Ⅲ. 근대기 희곡에 그려진 노부나가
Ⅳ. 근대기 역사서의 노부나가에 대한 기술
Ⅴ. 마치며

Abstract

本稿は、近代において、織田信長がどのように英雄として形成されていく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信長は、江戸時代には豊臣秀吉に比べ注目もされず、また、肯定的な評価がされていなかった人物であった。信長は、その残忍な側面が強調され、儒教的な基準からは評価が低く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そのような信長への評価は、周知のように、明治初期には彼を祀った建勲神社が創立されるなど、江戸末期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変化が見られた。

本稿では、江戸時代の浄瑠璃、歌舞伎、そして、近代の新歌舞伎や演劇戯曲、そして、歴史書をもとに、江戸時代から近代にかけての信長像の変遷を追った。考察を通じて、江戸時代から明治、大正、昭和時代にかけて、信長のイメージは、尊皇的忠臣、新時代の改革者、国体の擁護者、そして、海外進出を企てた先駆者として形成さ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

Key Words : 織田信長, 英雄像, 近代日本, 尊皇的忠臣, 新時代の改革者
Oda Nobunaga, Heroic Image, Modern Japan, Royalist, Pioneer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2A-A00116].
**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일본문학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들어가며

본고는 근대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이하 노부나가로 칭함)에 대한 영웅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부나가는 에도(江戸)시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하 히데요시로 칭함))에 비해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던 인물이었다. 노부나가는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 유교의 기준으로 보면 평가가 낮았다. 그러한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가며 변화하였고 메이지 초기에는 노부나가를 제신으로 모신 신사가 건립된다. 근대 이전에 근왕적 충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로는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와 닛타 요시사다(新田義貞)가 잘 알려져 있다. 메이지시대에 그들을 기린 신사가 건립된 것처럼 노부나가도 근왕적 행적으로 인해 신사가 건립되었던 것이나 그들에 비해 노부나가는 근왕적 충신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945)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부나가 전기의 성격을 지닌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책 말미부분에는 근대군신에 대해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 덧붙여져 있다. 태평양 전쟁 하에서는 노부나가를 군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고 있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지금까지 조명되어 오지 않았던 근대기 노부나가의 영웅상 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에 들어와 노부나가와 관련된 무장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노부나가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었나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영웅시되어 왔던 평가들에 대한 재고를 시도하는 이케가미 유코(池上裕子)[1]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문학작품과 근대역사서들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영웅상 형성에 대한 과정 역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부나가의 영웅상 형성에 대한 고찰로는 구로다 사토시(黒田智)[2], 아카기 다에코(赤木妙子)[3], 호리 신(堀新)[4] 등의 연구가 있으나 모두 근

1) 池上裕子(2012)『織田信長』吉川弘文館
2) 黒田智(2002)「信長夢合わせ譚と武威の系譜」『史学雑誌』111(6), pp.1047-1071.
3) 赤木妙子(1991)「織田信長の自己神格化と鳴津牛頭天王」『史学』60(1), pp.127-14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 이전에 대한 고찰이며 근대에 형성된 영웅상에 대해서 조명한 것은 없다.

중세시대에서 근세시대로의 전환기에 등장하고 일본의 천하통일이라는 국가 전체의 통합을 실현하려 한 인물인 노부나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영웅상이 에도시대, 메이지시대를 거치며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초기에 어떻게 변용, 재해석되어 가는 지 그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근세적 명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근대적 군신으로 전환된 점에 주목하여 전시 하에서 강조되거나 변용된 오다 노부나가의 이미지에 대해 희곡과 교과서, 역사서를 통해 살펴보겠다.

Ⅱ. 에도시대의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

1. 에도시대 희곡에 그려진 노부나가

노부나가에 대한 전기로는 노부나가 1대를 편년체로 기술한 오타 규이치(太田牛一)의 『신쵸코키(信長公記)』와 그를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윤색한 오제 호안(小瀬甫庵)의 『신쵸키(信長記)』가 있다. 『신쵸코키』가 에도시대 초기에 간행이 안 된 채 사본으로 소수에게만 유포되었던 데에 반해 『신쵸키』는 간본으로 널리 유포되어 노부나가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신쵸코키』와 『신쵸키』의 큰 차이는 전자는 기록성이 두드러지며, 후자는 당대적인 사상의 동향에 따른 의도 하에 윤색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5]. 즉, 『신쵸키』속 노부나가는 "성왕 선현의 길을 체현하는 무장의 실재를 나타낸다."는 목적 아래 창작된 극히 당대적인 노부나가상이 되었던 것이다[6].

이러한 『신쵸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학작품 특히 조루리(浄瑠璃)와 가부키(歌舞伎)가 상연되면서 노부나가의 이미지 고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주로 노부나가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이하 미쓰히데로 칭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노부나가보다는 미쓰히데에 조명

4) 堀新(2002) 「『平家物語』と織田信長」『文学』, pp.101-113
5) 林達也, 原道生(1988) 『日本文芸史 <第4巻> - 表現の流れ 近世』河出書房新社, pp.32- 34. 沢井耐三 「乱世の文学」久保田淳 『岩波講座日本文学史』第7巻, pp.40-41.
6) 林達也 전게서. p.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작품들이 많았다. 즉, 작품 내에서 노부나가는 잔인함, 포악함이라는 성격부분만 조명이 되어 악인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에도시대 말기까지 그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학적인 사상이 정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시대에 주로 가미가타(上方)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미쓰히데를 옹호하고 노부나가를 극악무도한 인물로 그리는 연극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7].

노부나가를 등장시킨 조루리로는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본조삼국지(本朝三國志)』(1719)가 시기적으로 이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노부나가는 전체 5단 중에서 첫 단에만 등장하며, 히데요시가 미쓰히데의 반역에 의해 죽은 노부나가와 노부타다의 원수를 갚고 천하를 통일하며 조선을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8]. 극 중에서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지휘에 따라 몽고정벌에 나서라는 명령에 거역하는 미쓰히데에게 모욕을 주기는 하나 그 장면에서 노부나가 특유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노부나가는 이후의 작품들처럼 불합리한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미쓰히데의 이마를 부하에게 치게 한 것도 천황의 칙사에게 치욕적 얘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미쓰히데가 3년 전부터 노부나가 살해 음모를 계획한 반역인으로 등장한다. 그러한 미쓰히데의 마지막을 "인간이 아닌 축생은 칼로 죽일 수 없다."며 백성들의 죽창에 의해 죽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9]. 지카마쓰는 미쓰히데를 철저하게 벌 받아야 할 주군을 죽인 악인으로 조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 이어 만들어진 조루리 작품들은 『본조삼국지』를 전거로 하면서도 미쓰히데의 반역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雲)의 『슛세얏코오사나모노가타리(出世握虎稚物語)』(1725)는 사이토 도산(斎藤道三)의 딸과의 혼인, 이마카와 요시모토(今川義元)를 격멸시키기까지의 이야기를 히데요시의 출세담을 주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안에서 노부나가는 성미가 급하고 아집이 강한 면도 보이나 뛰어난 지략과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일본의 주군'으로

7) 松田修(1976),「信長と光秀」, 日本古典文学回回報41호.
8) 近松全集刊行会(1989)『本朝三国志』『近松全集』第一一巻 岩波書店, pp.1-110.
9) 백성의 죽창에 죽는 것은 후세까지 치욕으로 남으니 할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설정되어 있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추앙받는 인물로 조형되고 있다[10].

그 외 나카무라 아케이(中邑阿契), 아사다 잇초(浅田一鳥) 외 3명 합작의 『기온제례신앙기(祇園祭礼信仰記)』[11](1757)는 『본조삼국지』를 번안한 작품으로 노부나가의 요시아키(義昭) 옹립과 마쓰나가 다이젠(松永大膳) 토벌을 주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노부나가는 장군 아시카가 요시테루(足利義輝)를 걱정하고 아시카가 가문을 위해 힘쓰는 인물로 묘사된다[12]. 미쓰히데는 노부나가를 살해할 의지를 가진 인물로 등장하나, 노부나가는 오히려 그를 아군으로 만드는 등 사려 깊고 지략에 뛰어난 장수로 그려진다. 이들 작품에서는 노부나가와 미쓰히데와의 대립을 피함으로써 노부나가의 잔인한 측면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카마쓰 한지(近松半二)는 『삼일태평기(三日太平記)』(1767)와 『가나우쓰시아즈치몬(仮名寫安土問答)』(1780)에서 노부나가를 '오니(鬼)'와 같은 잔인한 폭군으로, 그리고 미쓰히데를 지와 인을 겸비한 충신으로 조형했다. 한지는 반역인을 조명한 작품이 많았던 작가로 특히 미쓰히데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는 미쓰히데가 주군 노부나가에 대해 끈질기고 진실어린 간언을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혼노지(本能寺)의 변(変)'을 해석하고 있다[13]. 미쓰히데의 반역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부나가의 불합리성, 무도함을 부각시킨 인물조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지의 노부나가 인물 조형은 이후의 조루리와 가부키 작품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지의 미쓰히데 조형의 영향을 받은 작품에 지카마쓰 야니기(近松柳)외 합작의 『에혼타이코키(絵本太功記)』(1799)가 있다. 『에혼타이코키(絵本太功記)』는 요미혼(讀本) 『에혼타이코키(絵本太閤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는 하나 후자가 히데요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데에 반해 미쓰히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

10) 竹田出雲 著;古谷知新 校(1927) 『千前軒全集』上. 『日本戯曲大全』第4巻, 東方出版株式会社, pp.209-278.

11) 원제목은 『기온제례신초기』였으나, 『기온제례신앙기』로 변경되었다. 조루리로는 초연인 1757년 12월부터 1759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장기 흥행하였고, 가부키로도 상연이 되는 등 인기작품이었다. 早稲田大学演劇博物館(1961) 『演劇百科事典』pp.181. 服部幸雄, 富田鉄之助, 広末保(2000) 『歌舞伎事典』平凡社, p.135

12) 山田和人校訂(1995) 『江戸叢書豊竹座浄瑠璃集』三国書刊行会, pp.273-377.

13) 内山美樹子(1996) 『絵本太功記』『近松半二江戸作者浄瑠璃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内山美樹子해설부분 pp.433-503, 仮名写安土問答』는 pp.568-56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미쓰히데 측에서 바라본 노부나가로 인물이 조형되고 있다[14]. 다만 미쓰히데에게 일방적으로 동정적인 것은 아니며, 노부나가에 대해서도 미쓰히데에게 잔혹하게 대하게 된 이유, 경위까지도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조루리의 인물조형은 가부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쓰루야 남보쿠(鶴屋南北)의 가부키『도키모키쿄노슛세노우케죠(時桔梗出世請状)』[15](1808)는 조루리『기온제례신앙기』,『삼일태평기』『에혼타이코키』를 바탕으로 미쓰히데가 혼노지에서 노부나가를 습격하기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통칭이 '바다라이의 미쓰히데(馬盥の光秀)[16]'라 할 정도로 미쓰히데가 노부나가에게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 노부나가의 불합리하고 집요한 괴롭힘이 계기가 되어 미쓰히데가 반역하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삼일태평기』와『가나우쓰시아즈치몬도』,『에혼타이코키』, 그리고 가부키『도키모키쿄노슛세노우케죠』에서 주로 미쓰히데에 조명한 극작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부나가는 악의 인물로 조형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학자들의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역사서에 기술된 노부나가

에도시대 대표적 역사서로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의『본조통감(本朝通鑑)』(1670), 하야시 가호(林鵞峰)의『일본왕대일람(日本王代一覽)』[17](1652),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독사여론(讀史餘論)』(1712), 라이 산요(頼山陽)의『일본외사(日本外史)』(1827년 성립, 1836~37년경에 간행)등을 들 수가 있다.

편년체인『본조통감』과 역대 왕별로 그간의 사건을 기술한『일본왕대일람』에서는 인물에 대한 견해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칠무여론(七武餘論)」(1640년

14) 11일, 12일의 단에서는 지카마쓰 야나기와 다른 작가가 집필한 부분으로 야나기와 달리 미쓰히데를 악으로 묘사하고 있어, 작품 전체의 인물 조형의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다.
15) 현재 상연 시에는『도키와이마키쿄노하타아게(時今也桔梗旗揚)』라는 제목을 사용함.『歌舞伎事典』pp.289-199
16) 바다라이(馬盥)란 말에게 먹이는 물을 담는 통으로, 극 중에서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에게 보낸 선물이었다. 그것으로 술을 못먹는 미쓰히데에게 술을 억지로 먹게 하는 장면을 지칭한다.
17)『本朝通鑑』을 간추린 것이며, 항간에도 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663년에는 간본이 나오게 되어, 지카마쓰 등 에도시대 희곡작가들도 참고로 한 역사서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18]을 보면 하야시 라잔의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글 중에서 라잔은 노부나가의 천성을 잔혹하고 박정하다(天性刻薄之人也)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라이 하쿠세키는 『독사여론』에서 노부나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 그 일은 잔인하다고는 하나 오랜 승려들의 횡포를 없앴다. 이것도 또한 천하의 공 중의 하나라 해야 할 것이다. (중략)이 사람 천성은 잔인하고 남을 속이는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끝이 좋지 못한 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불행은 아니다[19].

히에이잔(比叡山) 등 불교세력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잔인한 일이기는 하나 그 동안 오래되었던 승려들의 횡포를 근절시켰다는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그 천성의 잔인함으로 인해 미쓰히데가 반역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 말하고 있다. 이 외에 하쿠세키는 노부나가를 조정의 힘을 이용하려 한 '흉역(凶逆)'이라 하며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듯 에도시대 중기까지는 노부나가에 대해 포악성과 잔인함을 들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부나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바뀐 것은 에도시대말기에 간행된 유학자 라이 산요의 『일본외사』에서 노부나가를 '영웅'[20], '절세의 능력(絶世の才)이 있는 자'[21]라고 부르면서부터이다.

『일본외사』는 간본이 나오면서 무사 자제들의 교육기관인 번교(藩校)와 서민

18) 古将帥, 平相国, 鎌倉右大将, 源将軍尊氏, 平信長, 豊臣太閤라 표제를 달고 각각에 대한 견해를 기술. 京都史蹟会編纂(1918)『羅山林先生文集』巻第二十五, 平安考古学会, pp.286-289

19) 物集高量校註(1919)『読史余論』『日本文学叢書』. 第10巻, pp.413-416. そのことは残忍なりと雖も、長く僧侶の凶悪を除けり。これもまた、天下の功有事の一つと成すべし（中略)この人天性残忍にして、詐力をもって志を得られき。されば、その終りを善くせられざりしこと、自ら取れる所なり。不幸にはあらず。

20) 西海の僧あり。衆中に在りて、信長を相して曰く、「この子、すなわち、英雄なり」と。『신초코키』에서는「あれこそ国は持 つ人よと、申したる由なり。」

21) 尾張に織田信長と云う者あり。年甫めて二十、東国の咽喉に割拠して能く少を以て衆を摧くと。是れ其の人必ず絶世の才あらん。君盍ぞ奏して綸旨を請い、信長に嘱するに撥乱反正の事を以てせざらん」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들의 교육기관인 데라코야(寺子屋)에서 역사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22], 에도시대말기부터 메이지초년에 대유행하였던 역사서이며[23], 존왕양이와 근왕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24]. 그 근거가 된 것은 노부나가가 궁궐을 수리하고 황실의 수입 안정을 도모하고 공경(公卿)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신초코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 수리에 대해서인데 이번에는 이웃 지방 사람들이 장기간 도읍에 머물며 정성을 다했다. 노부나가는 이들에게 사례를 하고 귀국하게 하였다. 애당초 궁중이 폐허가 되고 파괴되어 원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리되어야 한다고 부교(奉行)와 니치조(日乘), 무라이 민부노쇼(村井民部少輔)에게 명령하셨었다[25].

반면,『일본외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로 되어 있다.

> 노부나가는 무라이 사다카쓰, 시마다 히데미쓰, 승 니치조를 불러 말하길 "오닌의 난 이후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왕실이 쇠미하여 궁궐도 폐허가 되었다. 무릇 왕토에 살고 왕신인 자라면 마음 아파하지 않는자가 누가 있겠는가. 노부나가는 일찍이 수리할 뜻이 있었다. (중략)이제 도읍 내는 거의 평정되었다. 바로 궁궐을 수리하여, 그럼으로써 옥좌를 편하게 해야 한다. 하나 전란 후 노역을 시키는 것은 급박하게 하면 안된다. 필시 민정을 어지럽힐 것이다. 시기를 두고 잘 이루어야 한다."고 하며 히데요시를 교토에 머물게 하여 돌아갔다[26].

---

22) 吉田太郎(1966)「寺子屋における歴史教育の研究」『横浜国立大学教育紀要』6, pp39-59

23) 가와고에번(川越藩) 하쿠유도(博喩堂)의 야스오카 레이난(保岡嶺南)이 번주 마쓰다이라 나리쓰네(松平斉典)의 명에 의해『日本外史』을 교정(校訂)하여『校刻日本外史』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각 번 번교의 교재로 쓰이는 등 에도시대말기부터 메이지 초년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유행하여 전국에 확산되었다. 松平斉典, 日本外史항목『国史大辞典』, 稲垣忠彦(2002)「藩校における学習内容・方法の展開」『帝京大学文学部紀要教育学』27, pp.1－22, 頼成一訳(1976)『日本外史』岩波書店, p.8

24)『大日本史』,『読史余論』등은 인정(仁政)을 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위정자에 요구되는 주된 조건이었던 데에 반해,『日本外史』는 근왕, 존왕이 무사에게 지상의 도덕적 의무라 여겨졌다. 頼成一(訳) 上掲書, p.11

25) 御修理の事今度隣国の面々等、長々在洛にて、粉骨を尽さる。信長其の面々へ御礼仰せられ、帰国の御暇下され候ひしなり。抑も禁中御廃壊正体なきの間、是れ叉、御修理なさるべきの旨、御奉行、日乗上人、村井民部少輔、仰せ付けられ候らひき。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상과 같이 노부나가는 '천황의 신하'로서 황실에 대한 공경 및 민심을 우선하는 인물로 이미지가 변해간다. 메이지 이후는 노부나가가 행한 황실소유지의 회복 등의 업적이 근왕가로서의 평가를 높이는 요소가 되어, 1869년에 메이지 정부는 노부나가를 제신으로 모시는 다케이사오신사(建勳神社)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에도시대 말기부터 노부나가는 천황과 조정의 재흥을 도운 근왕가적인 면이 높이 평가받으며 부각, 강조되었고 메이지, 다이쇼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Ⅲ. 근대기 희곡에 그려진 노부나가

앞서 보아왔던 바와 같이 에도시대에는 중후기로 가면서 노부나가를 주인공으로 하기보다는 미쓰히데를 주인공으로 하는 조루리와 가부키 작품이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미쓰히데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어 동정적 심정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극이 만들어졌다. 한편 노부나가는 일률적으로 악의 인물로 조형되어갔다. 그러다 에도시대 말기 학자들 사이에서 노부나가에 대해 근왕적 인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갔으나, 조루리와 가부키에서는 그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메이지시대와 다이쇼시대까지 계속해서 상연되었다.

다이쇼시대가 되자 노부나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희곡작품들이 만들어진다. 노부나가를 다룬 이 시기 대표적 희곡으로는 오카모토 기도(岡本綺堂)『증보신초키(增補信長記)』(1915),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기리시탄노부나가(吉利支丹信長)』(1926),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아즈치의 봄(安土の春)』(1926)등을 꼽을 수가 있다. 오카모토 기도에게는『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마사무네 하쿠초에게는『미쓰히데와 조하(光秀と紹巴)』등 노부나가 뿐 아니라

26) 信長、村井貞勝、島田秀満、僧日乗を召して、之に諭して曰く「応仁以来、天下大に乱れ、王室衰微し、宮闕墜廃す。凡そ王土に居り、王臣たる者、誰か嗟悼せざらん、信長、夙に修挙の志あり。(中略)今や畿内ほぼ定まる。まさに禁内を修めて、以って帝座を安くすべし。然りと雖も、乱後の役を興すこと、急迫にす可からず。恐らくは民情を擾さん。宜しく漸を以って之を成すべし」と。すなわち、木下秀吉を留めて、京師を守らしめて帰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미쓰히데에게도 조명한 작품을 썼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오카모토 기도의『증보신초키』는 히에이잔의 승려들의 횡포와 노부나가의 히에이잔 토벌을 소재로 하고 있다. 노부나가는 히에이잔 승려들을 국적(國賊)로 간주[27]하여 소탕하려 하나 미쓰히데를 비롯 신하들은 반대 입장을 취한다. 조정에서 칙사가 천황의 하사품을 전달하려 찾아와 토벌 유예를 청하나 결국은 히에이잔 측이 선제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노부나가가 히에이잔을 먼저 공격 시작한 것이 아니라 히에이잔이 자멸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극 중에서 히에이잔 승려가 노부나가를 총으로 암살 시도하고, 신하들도 모두 노부나가와 반대 입장을 지녀 노부나가는 주변에 이해자가 전혀 없는 고독자로 그려진다. 한편 승려들에게 딸을 납치당한 아버지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며 딸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다.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모습보다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행동하는 지도자로 조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사나이 가오루의『기리시탄노부나가』(1926)는 무로마치고쇼(室町御所) 조영과 기독교 포교 허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28]. 에도시대 희곡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포교문제에 착안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니치조(日乘)가 프로이스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노부나가가 재미있어 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노부나가는 이국인에게 포교를 허락하는 것은 이국인을 감복시키는 것이라 하고 포교함으로써 국위발양이 되고 히에이잔과 혼간지(本願寺)를 억압가능하며, 그것이 학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노부나가는 논리를 강조하며 기독교인에 대해 논리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니치조는 논리(논의)로도 힘으로도 기독교인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었다.

노부나가에 대해서는 피곤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인부를 사정없이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이며 그의 잔학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으나, 대체로 논리적 인물로 조형되어 있다.

마사무네 하쿠초의『아즈치의 봄』는 아즈치성에서 일하는 시녀들의 무단 외출을 이유로 노부나가가 그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29]. 노부나

27) 岡本綺堂(1915)『増補信長記』『綺堂戯曲集』第9巻, 春陽堂, p.155
28) 小山内薫(1926)『吉利支丹信長』『戯曲 森有礼』改造社, pp.92-1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는 말을 달리다 농민의 아이를 밟아 죽인 것을 알고 인간은 무른 존재라 하며 잔인함 부각하고 있다. 그 외 기독교에도 관심을 보이며, 또한 일본통일 뿐 아니라 고려, 명, 나아가 남만(南蠻)까지도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인물로 조형되고 있다.

또한, 마사무네 하쿠초는 후에 노부나가를 다룬 소설『혼노지의 노부나가(本能寺の信長)』(1953)를 집필하는 등, 노부나가라는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사무네 하쿠초를 비롯한 작가들은 노부나가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습득한 것일까? 그를 짐작하게 하는 글을 마사무네 하쿠초는『문예평론』[30]속「인형극 등(人形芝居など)」에 남기고 있었다. 그는 노부나가의 일생과 그 시대에 관심이 많아 많은 사료를 읽었고 장편의 소설이나 희곡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아즈치의 봄』은『신초코키』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신초코키』는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의『근세일본국민사(近世日本国民史)』안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작품 내의 노부나가의 잔인성에 대해서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호가 "피에 굶주린 여귀(厲鬼)"라고 표현한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며 설명한다. 소호의『근세일본국민사』에 많은 부분 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세일본국민사』를 비롯한 근대역사서에서는 노부나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근대기 역사서의 노부나가에 대한 기술

1. 메이지시대 -근왕적 충신

메이지시대 이후 간행된 역사서의 노부나가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쿠토미 소호의『근세일본국민사』가 어떤 역사서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29) 正宗白鳥(1926)『安土の春』改造社, pp.1-53
30) 正宗白鳥(1927)『文芸評論』,改造社, pp.69-7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근세일본국민사』란 일본근세부터 메이지 유신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1918년부터 도쿠토미 소호 자신이 창간, 주재(主宰)한 「국민신문(国民新聞)」(후에 「毎日新聞」, 「東京日日新聞」)에 게재되었다가 순차적으로 간행되었던 통사이다. 오다 노부나가를 필두로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 이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호는 1887년에 민우사(民友社)를 설립하고 잡지 『국민지우(国民之友)』와 1890년에 「국민신문」을 창간하는 등 당시 일본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평민주의를 주창했던 그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강력한 국가의 형성을 중요시하게 되며 국가주의 입장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서 황실주의를 내세우며 집필한 것이 『근세일본국민사』였다. 신문연재로 시작하여 전 100권으로 구성된 대저(大著)였다. 앞서 언급한 마사무네 하쿠초 외에도 기쿠치 간(菊地寛),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등 작가들이 애독을 하고 있었다는 것[31]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역사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호는 『근세일본국민사』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료를 섭력했다. 그는 참고로 한 사료로 오타 규이치 『신초코키』, 『총견기(総見記)』, 라이 산요 『일본외사』를 비롯, 메이지기 이후 간행된 『사학잡지(史学雑誌)』,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국사안(国史眼)』(1890), 메이지육군참모부 『일본전사(日本戦史)』(1898), 와카나베 세유(渡辺世祐) 『아즈치모모야마시대사(安土桃山時代史)』(1907),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915), 『아즈치모모야마시대사론(安土桃山時代史論)』(1915) 등을 들고 있다. 그는 라이 산요의 『일본외사』외에도 『일본정기(日本政記)』에서 오다노부나가론을 인용한다. 이 두 역사서는 에도시대말기 존왕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사안』은 제국대학이 간행한 메이지초기의 관찬(官撰)일본통사이다. 신대(神代)부터 메이지 22년까지를 정치변천에 따라 21기로 나누는 독특한 양식을 지니며, 제국대학 국사과 교과서로 이용되었다[32]. 여기서 노부나가에 대해서는 제 17기 '織豊二氏遞興'에 기술되어 있는데, 오기마치(正親町)천황의 시기에 황

31) 杉原志啓(1995)『蘇峰と近世日本国民史』都市出版, p.308
32) 『国史大辞典』第5巻, 吉川弘文館, 重野安繹(1890)『稿本国史眼』 범례 pp.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실이 쇠미했던 모습에 대해, 그리고 노부히데의 헌금에 대한 기술로 시작된다. 145장의 표제인 '오다 노부히데의 경신 근왕의 정신은 노부나가에 전해지다(織田信秀敬神勤王ノ精神信長ニ伝フ)', 147장의 표제인 '오다 노부나가가 황실 및 막부를 부흥하여 드디어 아시카가의 시대가 되다(織田信長王室及幕府ヲ興復シ遂ニ足利氏ニ代ル)',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왕적 자세에 대한 기술에 무게가 놓여있다. 또한, 와타나베 세유『아즈치모모야마시대사』도 오다 노부나가의 근왕정신부터 언급하고 있다[33].

이러한 근왕적 행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부나가를 기리기 위한 신사건립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메이지 이후 역사교과서에서도 강조되어 교육된다. 예를 들어,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일본소사(日本小史)』(1885)에서는 "노부나가의 힘에 의해 황실은 실로 비로소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후세에 노부나가의 존왕의 대의에 대해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거나[34], 야마가타 데이사부로(山縣悌三郎)『소학교용일본역사(小學校用日本歷史)』(1889)에서도 노부나가를 충의가 있던 인물로 들고 있다[35]. 그 외『심상소학일본역사교수서(尋常小學日本歷史教授書)』(1911)를 보면 "노부나가가 근왕심이 두터웠다는 점"을 교육상의 주의점으로 들고 있으며 매 교시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36]. 또 다른 주의점은 노부나가의 시대는 전란으로 인해 조정도 쇠미하던 상황에서 노부나가가 근왕의 뜻을 일으켰다고 하며, 현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융성하게 발달한 데에는 백성뿐 아니라 황실도 어려움에 처하는 등 온갖 고초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특히 메이지시기에는 인물주의에 의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야마가타 데이사부로『제국소사(帝國小史)』(1893)에서도 이 시대의 대표적 인물을 표제로 하여 당시의 두드러진 사실,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37]. 그 안에서도 노부나가의 근왕적, 존왕적 행적을 '불후의 위훈(偉勳)'이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다케이사오신사의 건립에 이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다이쇼시

33) 渡辺世祐(1907)『安土桃山時代史』早稲田大学大版部, p.228
34) 大槻文彦(1885)『校正日本小史. 中』柳原喜兵衛
35) 山県悌三郎(1889)『小学校用日本歷史』学海指針社
36) 普通教育研究会 (1911)『尋常小学日本歷史教授書』pp.
37) 山県悌三郎(1893)『帝国小史乙号 巻之2下』文学社, pp.42-4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 이후의 교과서에도 이어진다.

메이지육군참모부가 편찬한『일본전사』는 나가사사(長篠)의 전투에 대해, 다케다군(武田軍)의 기마대(騎馬隊)를 노부나가의 총포대(鉄砲隊)가 격파한 '신전술과 구전술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정착시키고 오케하자마(桶狭間)전투를 기습작전으로 승리로 이끈 것으로 노부나가를 군사의 천재로 인식시킨 걸로 알려져 있다.

『사학잡지』는 1889년『사학회잡지(史會学雜誌)』로 창간, 1892년에 개칭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학 학술잡지이다.『사학잡지』는 도쿄대학(東京大學)계 학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는데, 1900년대 초기 사료편찬관과 제국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는 이 잡지 속 논문을 인용하여 명저『국사의 연구(国史の研究)』(1908)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일본사연구의 입문서적 개설서로 연구자들의 필수서라 할 수 있는 책이었다[38]. 그 안에서 노부나가의 업적으로 조정에 많은 헌금을 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부히데(信秀)는 근왕의 정신이 두터웠고 황실과 이세외궁(伊勢外宮)을 조영했다고『사학잡지』를 인용하며 기술하고 있다[39]. 그리고 황실을 수리하고, 공경을 돕고, 조정의 제도를 부활시킨 행적들을 통해 노부나가의 위세가 드높아진 것이라 설명한다[40]. 또한, 노부나가가 히에이잔 탄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히에이잔이 간무(桓武)천황이래 왕성의 진호였다며 반대하며 간언하는 자가 있으나, 노부나가는 자신이 근왕을 위해 진력하는 사이 히에이잔 승려들은 왕성진호라 부르짖으면서도 계율을 파계하고 있어 말살한 것이라고 근왕정신과 연관지으며 설명하고 있다[41]. 미쓰히데의 반역에 대해 노부나가의 성미가 급하고 냉혹한 것을 미쓰히데의 반역의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한편으로 노부나가는 매우 기민하고 사람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42].

『사학잡지』게재 논문을 다수 인용,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38)『国史大辞典』第5巻, 吉川弘文館.
39) 黒板勝美 (1908)『国史の研究』文会堂, p. 680
40) 黒板 상게서, p.683.
41) 黒板 상게서, pp.687-688
42) 黒板 상게서, pp.710-7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사대계(國史大系)』등의 사료편찬에 종사하고 역사학계를 이끌어가던 학자들에 의해서도 노부나가의 근왕적 행적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다이쇼시대 – 영웅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형성된 노부나가의 근왕적 평가는 다이쇼시대에도 이어진다. 다이쇼시대에 새로 부가된 노부나가의 이미지는 '영웅'이었다.

앞서 언급한 소호의 『근세일본국민사』안에서 그는 노부나가를 '시세(時勢)의 아(兒)', '위대한 영웅', '천성(天成)의 영웅'이라 칭하고 있다. 아라이 하쿠세키의 노부나가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43] 소호는 노부나가에 대해 인식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일본을 천황의 나라이게 했다는 점, 둘째, 일본을 온 일본국민의 일본으로 만드는 발단을 만들었다는 점을 든다[44]. 그는 이에 대해 '노부나가와 황실'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그의 철저한 일본통일의 계획은 일체의 번 사이의 경계를 철거하고 오슈(奥州)의 끝에서 규슈(九州)의 끝까지를 한 나라로 하는 데에 있었다.(중략)그 통일에는 중심점이 있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황실이다. 그는 이상가가 아니라 실천가이다. 그가 조정의 존엄을 점차 회복해 온 것은 일본의 통일은 오로지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 외에 그 길이 없다는 것은 간취했기 때문이었다. (중략)전일본을 일국으로 통치하는 것은 황공하게도 천황폐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인심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숙지했기 때문이다. 원래 그의 심사(心事)는 패자(覇者)의 심사였다. 그러나 만약 그를 패자라 한다면 그는 존왕적 패자였다. [45]

43)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前篇』, p.4
44)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前篇』, p.2
45)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後篇』, pp.83-84,「信長と皇室」「彼の徹底せる日本統一の企画は、一切の藩籬を撤去し、障碍を除却し、奥州の端より、九州の端迄を、一国となすにあった。(中略)其の統一には、中心点があつた。それは申す迄もなく、皇室だ。彼は理想家ではなく、実際家だ。彼が 朝廷の尊厳を、漸次に恢復し来りたるは、日本の統一は、只だ皇室を中心とするの他に、其道なきことを看取したからであつた。(中略)全日本を一国として統治するには、畏れ多くも天皇陛下の御名を以てする他に、人心を繋ぎ得るものはないことを、熟知したからであった。固より彼の心事は、覇者の心事であった。 されど若し彼を覇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소호는 노부나가가 꾀한 전국통일의 중심에는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부나가의 근왕심을 의문시하거나, 최대의 적은 오기마치천황이었다는 최근의 연구[46]도 있어 사실(史實)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소호는 노부나가의 천하통일에 황실중심주의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호는 노부나가를 구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자 신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라고 말하며, '새 시대의 대표자', '새 시대의 권화(權化)' 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노부나가는 새 시대의 대표자일 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솔선자였다. 그는 일본에서 근세적 중앙집권정치의 실행자였다. 그리고 그 사업은 200여년 후 이와쿠라(岩倉) 오쿠보(大久保)의 시대에 겨우 완성되었다. [47]

> 내가 노부나가를 가장 높이 사는 점은 그가 일본 전국을 시정의 단위로 한 것이다.(중략)그는 일본에는 중의 나라도 없고 구게(公家)의 나라도 없고 토호의 나라도 없으며 오로지 일본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은 오로지 천황뿐이라는 것을 체득하였다. 누구도 황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노부나가 혼자만 근왕가라 불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단 정치적으로 황실중심주의를 실행한 것은 실로 그 뿐이었다. (중략)근왕도 비로소 그에게 이르러 처음으로 일본제국의 일치와 존립 위에 큰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천하통일의 사업도 그에게 이르러 비로소 제국의 국민적 일치의 대기운과 합체가 가능하다. (중략)황실주의도 제국주의도 평민주의도 남김없이 모두 그가 표현했다. 그는 실로 신시대의 화신이었다. [48]。

とすれば、彼は尊王的覇者であった。

46) 今谷 明(2002)『信長と天皇 中世的権威に挑む覇王』(講談社学術文庫)

47)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中篇』「信長は新時代の代表者であるのみでなく、寧ろ其の率先者であつた。彼は日本に於て、近世的中央集権政治の実行者であった。然も其業は、二百余年の後、岩倉、大久保等の時代に於て、漸く完成した」p.531

48)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前篇』pp.532-533「吾人が信長に最も多しとするは、彼が日本全国を、施政の単位としたことである。(中略)彼は日本には、坊主国もなく、公家国もなく、土豪国もなく、唯だ日本国ある可きものとした。而して其上に君臨するは、唯だ天皇であることを体得した。何人も、皇室を大切に思はぬ者はない、信長一人に勤王家の名を擅にせられる可き理由は、毛頭ない。併し政治的に皇室中心主義を、実行したのは、実に彼其人であつた。(中略)勤王も、彼に至りて、始めて日本帝国の一致と、存立との上に、大なる意義がある。天下統一の事業も、彼に至りて、始めて帝国の国民的一致の大気運と、合体す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노부나가의 히에이잔과 혼간지 불교세력 초토화에 대한 이유를 황실중심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 정당화하여 설명한다. 이외에도 노부나가의 불교세력탄압, 전국통일사업, 모두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를 갖춘 일본제국 수립을 위한 행적으로 평가가 수렴되어 있다.

소호는 노부나가가 히데요시보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주적 인물로 근고(近古) 미증유의 영웅이라 평하고 있다. 일본인은 외래의 것을 선호하는 약점이 있는데 영웅숭배에 있어서도 윌슨과 같은 인물을 숭배하는데 그보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얻을 것이 많을 거라고 주장한다[49]. 노부나가를 아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노부나가는 시대 이상의 인물이었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일본의 실력을 믿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인 스스로가 일본을 알 것을 첫째 요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근세일본국민사 집필의 부득이한 이유라고 나는 믿는다."고 하며 『근세일본국민사』를 집필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은 일본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려면 일본인 스스로를 알아야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한다"[50] 고도 말하며 자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근세일본국민사』가 이 목적에 공헌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까지 하고 있고, 숭배해야 할 영웅의 대상으로 노부나가를 들고 있는 것에서 소호에게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았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소호는 『근세일본국민사』를 저술하는 데에 참고한 문헌들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 것으로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915) 를 꼽는다. 소호가 공감하는 아이잔의 노부나가 평은 다음과 같다.

> 아시카가의 시대 말기에 일본은 완전히 난세가 되어 구물(舊物)이 파괴된 듯 하였으나 사실 일본은 여전히 제국으로서 인민의 존왕심은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 무수의 영웅이 영토를 분할하고 경계를 지키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일본은 많은

ことができる。(中略)皇室中心主義も、帝国主義も、平民主義も、残る隈なく彼に表現した。彼は実に新時代の権化であつた」

49)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後篇』, pp.14-17

50)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中篇』pp.546-54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독립국이 분열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궁중에서 볼 때에는 그런 때에도 역시 그들은 모두 왕신이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자신에 힘에 의지해서 국민의 통일을 기도하는 처음부터 이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새로운 질서는 오직 이 만고천추(千秋万古) 동안 아직 한 번도 생명을 잃은 적이 없는 존왕심을 기초로 하여 이 위에 그 이상의 나라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51)

그는『아이잔사론(愛山史論)』(1913)에서도 노부나가를 나폴레옹과 비교하며 공통점을 들어 절찬하고 있다. 야마지 아이잔은 노부나가에 대해서 '시세(時世)의 자(子)'라 하여 여러 특징을 들며 아래와 같이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

> 시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도 또한 시세를 만든다, 이 때 시세의 선두에 서서 천화통일의 기운을 촉진한 영웅은 물론 한 사람이 아니다. (중략)그러나 그들 영웅 중에서 그 공이 큰 것을 들자면 바로 오다 노부나가를 으뜸으로 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실로 노부나가에 의해 그 통일 정치의 이상을 현실로 하고 그 인민이 나아갈 표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중략)일본 전국에 통일된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바탕을 만듦에 있어 그 거친 행적으로 인해 일본인민은 비로소 장래에 올 태평함에 대해 일정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노부나가의 이상은 히데요시, 이에야스를 거쳐 점차 현실로 나타나 도쿠가와시대 300년의 태평한 시대를 열고 메이지 다이쇼의 시대를 낳는 연원이 되었다. (중략)현실에서 말하자면 (중략)지금의 일본정부는 노부나가가 수립한 정부를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무릇 일본 국민이라면 어찌 이 새 시대의 개조(開祖)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단 이렇게 말할 뿐 논의가 약간 추상적이다. 우리는 나아가 사실에 대해서 노부나가가 새 시대의 개조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52)

---

51) 山路愛山(1915)『徳川家康』独立評論社,pp.435,「足利の世の末に日本島は全く乱世になりて旧物尽く破壊されたる如くなれども其時代にても其実日本は依然たる帝国にして人民の尊王心は少しも衰へたるに非ず。無数の英雄、地を割き、境を守りて相争ひし状を見れば日本国は多くの独立国に分裂し居たるが如くなれども禁裏より御覧ぜらるる時は其世にても彼等は猶ほ悉く王臣にてありけるなり。されば信長は自身の力に依りて国民の統一を計りたる始めより此に着眼し、日本島の新しき秩序は唯だ此の千秋万古未だ嘗て生命を失いひたることなき尊王心を基礎とし、此の上に其理想の国を築くに在りと思ひたり」

52) 山路愛山(1915)『徳川家康』独立評論社, pp.393-395,「時勢は英雄を作り、英雄も亦時勢をつくる。此時勢の潮頭に立ちて天下一統の気運を促進したる英雄は勿論一人に非ず。(中略)さりながら此等の英雄中に就て其功の最も大なるものを論ぜば、則ち織田信長を推して第一とせざるを得ず。何となれば、日本島は実に信長に依りて其統一政治の理想を現実にし、其人民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노부나가가 존왕심으로 인해 천황을 중심으로 전국통일을 했다고 하는 점은 같으나, '장래', '메이지 다이쇼의 시대', '지금'이라고 언급하듯, 노부나가의 전국통일이 현재의 천황중심의 정치에 연속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노부나가와 같은 영웅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국민은 신 시대의 개조(開祖)인 노부나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소호가 노부나가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 노부나가 즉 이 조류에 채찍을 가하여 황실을 익대(翼戴)하고 병권을 집중시켜, 양식, 탄약을 충실히 하여 신사 사원의 발호(跋扈)를 억눌러 여러 관문을 철폐하고 재판을 공정히 하여 인민을 애무하고 장래에 일어날 제국의 강령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 바탕은 실로 인재를 고무, 교육, 선발함으로써 정부 요직의 각 기관에 배치함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의는 그 계승자인 히데요시, 이에야스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이 의미에서 노부나가는 근세의 일본문명을 개척한 최초의 안내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3)。

노부나가가 행해 왔던 선정(善政)과 교육들이 모두 제국의 강령을 세우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주의가 후의 히데요시, 이에야스에 계승되었다고 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연속성을 주장한다.

노부나가 - 히데요시 - 이에야스 - 현재(다이쇼)의 연속성에 대한 주장은 일

向って進むべき標準を定め得たればなり。(中略)日本全島に統一の政治を行ふべき下地を作りしに及びて其荒ごなしの功によりて日本人民は始て将来に起るべき泰平に対して一定の信念を懐くを得たり。(中略)信長の理想は、秀吉、家康を経て次第に現実に現れ以て徳川時代三百年の泰平を開き、明治、大正の御代を生ずべき淵源となれり。今の日本政府は信長の建てたる政府を継承したるものに外ならずとすれば、凡そ日本国民たるもの何ぞ此新時代の開祖に向て感謝の情なきを得んや。但し斯く言ひたるのみにては議論些か抽象に過ぎたり。我等は更に進んで事実に就いて信長が新時代の開祖たる所以を説かんと欲す」

53) 山路愛山(1915)『徳川家康』独立評論社, p.439,「信長即ち此潮流に鞭ちて皇室を翼戴し、兵権を集中し、糧食弾薬を充実し、社寺の跋扈を抑へ、諸関を徹し、裁判を公平にし、人民を愛撫し、将来に起るべき帝国の綱領を立つ。而して其本は実に人才を鼓舞、教育、識抜して以て政要の各機関に置きたるに在り。斯くて此主義は其継承者たりし秀吉、家康を経て以て今日に至れり。此意味に於て信長は近世の日本文明を開拓したる最初の案内者なりと云ふも可なり」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역사지리학회 편『아즈치모모야마사론(安土桃山時代史論)』(仁友社, 1915)에 수록된 다나카 요시나리(田中義成)의「노부나가와 아즈치성(信長와 安土城)」에도 볼 수가 있다. 노부나가는 아즈치시대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존왕사상은 히데요시에게, 나아가 에도시대에도 영원히 국민 사이에 이어져 황실을 옹호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이 노부나가가 해외에도 세력을 확장할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 히데요시가 한 것은 모두 노부나가가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그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노부나가는 해외경영의 웅도(雄図)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54].

노부나가가 아즈치성을 쌓아 사방을 호령하는 데에 그곳의 지세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히데요시도 그것을 따라 오사카에 성을 쌓아 규슈평정을 했던 것이라 설명한다. 다나카는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진출한 것도 노부나가의 구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언급할 조선국민교육연구소 편『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945)에서도 같은 맥락의 기술을 볼 수가 있다.

> 이제 곧 일본은 진정되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용사들을 배에 태워 먼 남쪽 나라에 보내려고 생각한다. 외국인은 큰 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 그 때 길 안내를 시키기에 좋지 않은가? (중략)온 세계를 우리 집처럼 진출해 나가고자 하고 했던 노부나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후에 이것이 히데요시의 조선정벌이 되고 명나라까지 일본인의 무용에 떠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55]

---

54) 田中義成(1915)「信長と安土城」日本歴史地理学会(1915)『安土桃山時代史論』仁友社, p.113.「秀吉のやったことは総て信長のやりかけた事をそのまま踏襲して居りますから、是も其一つであるまいかと思ふのであります。更に一歩を進めて考へて見ると、信長は海外経営の雄図をも抱いて居ったやうであります。」

55)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1945)『織田信長』, pp.151-152,「今に日本は鎮つて戦がなくなるだらう。さうしたら、沢山の勇士たちを舟に乗せて、遠い南の国の方へやらうと思ふ。外国人は大舟を沢山もつているさうだから、その時道案内をさせるに都合がいいではないか。(中略)世界中を我家として広がつて行かうと考へていた信長のことはよく覚えていてよいことと思ひます。後にこれが、秀吉の朝鮮征伐となり、大明国まで、日本人の武勇に慄ひおののかせる源となつたのでありま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독교의 포교를 허락한 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부나가는 전국통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사후 히데요시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쇼와 시대 – 국체 옹호자

쇼와시대에도 다이쇼시대에 등장한 노부나가에 대한 영웅담론은 이어진다. 하루후지 요이치로(春藤與市郎) 『소년 오다 노부나가전(少年織田信長傳)』(大同館書店, 1931)는 노부나가를 시대가 요구한 영웅이라 주장한다.

그는 소호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영웅이나 위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영웅은 많았으나 노부나가는 그의 활동이 '오다시대'라고 불리는 한 시대를 형성하고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희대의 대영웅'이라 하고, 그리고 낡은 무로마치시대의 껍데기를 깨고 아즈치 신시대의 개척자가 된 '혁세(革世)의 영웅'이라 부른다. 하루후지 요이치로는 정치가 부패하고 인심이 퇴폐하여 모두가 대지도자의 출현을 바라고 있을 때 노부나가와 같은 초세간적인 대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혁신, 신시대의 출현을 바랄 때 노부나가와 같은 '쾌도난마(快刀亂麻)'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6]. 시대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인 것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노부나가는 시대가 요구하던 영웅이라고 주장한다.

1931년에 노부나가 사후 350년을 맞이하자 이를 기념하여 나고야중앙방송국(JOCK)에서는 기념강좌가 행해졌으며 『오다 노부나가공 삼백오십년기념 강연집(織田信長公三百五十年記念講演集)』이 간행되었다. 그 중 이세신궁 네기(伊勢神宮禰宜)의식과장인 사카모토 고타로(阪本廣太郎)가 「오다 노부나가의 존왕경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노부나가의 수많은 업적 중 "그의 생애를 미화하고, 그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하는 것"은 존왕경신의 사적(事蹟)이라 하고 있다. 그는 무로마치막부 타도 후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지

56) 春藤与市郎(1931)『少年織田信長伝』,大同館書店, pp.3-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않고 “건국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국체의 규모(規模) 하에 새로운 천황정치”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노부나가의 근왕정신은 단순히 황실을 수리하고 황실소유의 땅을 회복하고 중지되어 왔던 황실의 전례(典禮)를 부활시키던 것에서, 전국통일 사업이 천황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었었다. 그것이 나아가 노부나가의 모든 행적들을 ‘건국의 정신’, ‘국체’와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게 된다.

1930년대 말이 되자 육군소년전차병학교(陸軍少年戦車兵学校)라고 하는 기갑부대(機甲部隊)의 보충 강화를 위한 일본제국육군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주로 14-19세의 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곳을 배경으로 쓰인 책에 사토 다케시(佐藤武)『소년전차병이야기(少年戦車兵物語)』(1942) 가 있다. 서문을 보면 전시 하 청소년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중「영웅론(英雄論)」에서는 이 학교의 수업 시간이라는 설정 하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다음과 같이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 그 개인의 이해와 영달을 희생을 해도 어디까지나 황국민으로서의 신념 아래 강하게 행동한 마사시게와 요시사다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영웅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저는 어디까지나 오다 노부나가를 그 조건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57].

“황실에 대한 일본국민으로서의 성충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58] 노부나가는 이 가장 중요한 영웅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통일 사업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목적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대표적 근왕가인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닛타 요시사다처럼, 노부나가도 근왕가로서 영웅으로 추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웅에 대한 논의 중 “일본의 영웅은 반드시 국체의 옹호자(日本の英雄

57) 佐藤武(1942)『少年戦車兵物語』東亜書院 p.36「その一個人の利害や栄達を犠牲にしても、何処までも皇国民としての信念のもとに強く行動した正成や義貞の如き人こそ、真に日本の英雄だといふべきです。だから戦国時代に於ては、僕は何処までも織田信長をその条件に最も叶った人であると信じます。」

58) 佐藤武(1942)『少年戦車兵物語』東亜書院, p.3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は必ず国体の擁護者)[59]"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사카모토 고타로의 강연 중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역사 교과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국사의 건설과 완성 학습지침(国史の建設と完成 学習指針)』(1941) 에서는 전국시대의 근왕가로 오다 노부히데와 노부나가를 들며 그들에 의해 조위(朝威)가 부흥했다고 기술한다. 천하통일 업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존왕의 마음이 두터워서 겐지와 아시카가씨처럼 정이대장군이 되지 않고 조정의 대신으로 정치를 행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전국의 난세를 통일한 것은 황실의 위광에 의한 것이다. 황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 두 사람 모두 황실을 받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일본 국내가 통일 가능했던 것이다. 거기에 우리 고귀한 국체가 빛나고 있다[60].

노부나가와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황실을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미이쓰(御稜威), 즉 황실, 천황의 위광(威光)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라며 천황, 황실에 대한 존숭이 강도를 더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국체를 실현한 인물들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 『오다 노부나가』(1945년)가 소장되어 있다. 노부나가의 비범함과 용감함, 근왕심 등을 삽화와 함께 유년기부터 죽음까지 기술한 초등학생 대상의 노부나가 전기로 보여진다.

『오다 노부나가』에는 노부나가가 직접 부하들을 황폐해진 황실로 데리고 가 일본은 천황의 국가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장군을 최고 통치자로 알고 천황의 존재를 모르는 무사들에게 일본은 천황의 나라이며 자신들은 그 신하에 불과하다며 근왕심을 가질 것을

---

59) 佐藤武(1942)『少年戦車兵物語』東亜書院, p.33

60)村上塾指導部(1941)『国史の建設と完成 学習指針』駸々堂, p.178「織田信長及び豊臣秀吉は、尊皇の心が厚いので源氏や足利氏のように征夷大将軍にならずして、朝廷の大臣として政治を行っている。この二人が戦国の乱世を統一したのは皇室の御稜威によるものである。皇室を仰がなければ、あれだけの仕事は出来ない。二人とも、皇室を奉じたればこそ、はじめて日本の国内が統一せられたのである。そこにわが尊い国体が、かがやいてい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야기한다[61]. 그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칼을 휘두르는 데, 노부나가의 잔혹성을 여기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노부나가의 근왕적 업적을 어린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극적으로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오케하자마전투에서 보인 노부나가의 용기를 태평양전쟁 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ABCD포위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나간 것과 같은 심정이라 설명한다[62]. 또한 그의 전격적 전투법은 하와이에서 적의 함대를 전멸시킨 것과 같다고 현재의 전쟁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의 사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노부나가는 혼노지에서 죽어도 그 혼은 히데요시와 함께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히데요시 뿐 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며 진주만의 공격이 되고 말레 기습상륙이 되어 온 세계에 일본의 무위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부나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래 오래 살고 있습니다. [63]

앞서 언급한 전기『소년 오다 노부나가전』에서는 노부나가의 사후 그의 미완의 사업은 히데요시가 실행에 옮겨 '해외조선팔도'까지 무위를 떨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손들은 화족으로 지금도 맥을 잇고 있다는 이야기, 다케이사오신사 건립, 다이쇼천황의 정일위(正一位) 추증(追贈)에 대해 말하며 그의 명예는 영원할 것이라고 글로 마무리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특히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져가고 일본본토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본격화되던 때에 간행된 책으로 전국시대라는 난국을 타개한 노부나가의 행적을 용맹한 근왕적 충신, 그리고 해외진출을 기도한 선구적 인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61)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1945)『織田信長』, pp.92-99.
62)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1945)『織田信長』, p.40
63)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1945)『織田信長』pp.181-182,「信長は、本能寺で死んでも、その魂は、秀吉と一緒に永く生きてゐました。いや、秀吉ばかりでなく、今でも我々と共に生きてゐて、真珠湾の攻撃となり、マレーの奇襲上陸となつて、世界中に、日本の武威を輝かしてゐるのであります。そうです。信長は生きてゐます。我々と共に。長く、長く一生きてゐます。」
64) 春藤与市郎(1931)『少年織田信長伝』,大同館書店, pp.491-49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Ⅴ. 마치며

이상에서 오다 노부나가 영웅상에 대해 에도시대부터 근대기에 걸친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노부나가의 잔인한 면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던 에도시대 희곡과는 달리 에도시대 말기에 쓰여진 라이 산요의 『일본외사』의 영향으로 점차 그의 근왕적 면이 부각되어갔다. 또한 메이지 초기에는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편찬한 역사서의 영향으로 전술에 뛰어난 무장으로서의 이미지도 성립되었으나 그 외 역사서에서는 전술적 면 보다는 근왕적 충신이라는 면이 높이 강조되어 왔다.

다이쇼시대에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전국시대라는 난세를 타개한 노부나가를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 신시대를 개척해나갈 인물로 치켜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쇼와시대에는 노부나가의 근왕적 행적이 '건국의 정신', '국체'와 연결지어지며 '국체 옹호자'로서의 영웅 노부나가상이 형상되었다. 전시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벗어나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노부나가상이 덧붙여지며, 그의 그러한 용기가 전시하 일본인에게 큰 용기가 되는 영웅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는 『총(鉄砲)』(1944),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948), 『노부나가(信長)』(1952) 등, 노부나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집필했다. 그 중 『총』은 그의 전술을 '일본최초의 근대전술'이라 높이 사며 쓴 단편소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부나가의 정신이다. 비행기를 만들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65]."라는 마지막 문장이 전시하라는 시대적 상황의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 전후 사카구치 안고가 노부나가를 어떻게 그려나갔는지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역사서, 소설들에 나타난 노부나가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의 변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65) 『坂口安吾全集03』筑摩書房, 19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早稲田大学演劇博物館(1961)『演劇百科大事典』平凡社, pp.181.
服部幸雄, 富田鉄之助, 広末保(2000)『歌舞伎事典』平凡社, p.135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国史大辞典』第5巻, 吉川弘文館
池上裕子(2012)『織田信長』吉川弘文館
林達也, 原道生(1988)『日本文芸史 <第4巻> - 表現の流れ 近世』河出書房新社, pp.32-34.
松田修(1976). 日本古典文学回回報41호.「信長と光秀」
竹田出雲 著;古谷知新 校(1927)『千前軒全集』上, 『日本戯曲大全』第4巻, 東方出版株式会社, pp.209-278.
山田和人校訂(1995)『江戸叢書豊竹座浄瑠璃集』三国書刊行会, pp.273-377.
内山美樹子(1996)『絵本太功記』『近松半二江戸作者浄瑠璃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pp.433-503,
内山美樹子(1996)『仮名写安土問答』『近松半二江戸作者浄瑠璃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pp.568-569.
物集高量校註(1919)『読史余論』『日本文学叢書』. 第10巻, pp.413-416.
京都史蹟会編纂(1918)『羅山林先生文集』巻第二十五, 平安考古学会, pp.286-289
頼成一(訳)(1976)『日本外史』岩波書店, p.8, p.11
岡本綺堂(1915)『増補信長記』『綺堂戯曲集』第9巻, 春陽堂, pp. 137-195
小山内薫(1926)『吉利支丹信長』『戯曲 森有礼』改造社, pp.92-124
正宗白鳥(1926)『安土の春』改造社, pp.1-53
杉原志啓(1995)『蘇峰と近世日本国民史』都市出版, pp.
重野安繹(1890)『稿本国史眼』범례 pp.1-3
渡辺世祐(1907)『安土桃山時代史』早稲田大学大版部, p.228
大槻文彦(1885)『校正日本小史. 中』柳原喜兵衛
山県悌三郎(1893)『帝国小史乙号 巻之2下)』文学社, pp.42-44
黒板勝美 (1908)『国史の研究』文会堂, p. 680
村上塾指導部(1941)『国史の建設と完成 学習指針』駸々堂, p.178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前篇』p.2 ,p.4, pp.532-533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中篇』p.531, pp.546-548
徳富蘇峰(1918)『近世日本国民史 織田氏時代 後篇』pp.83-84, pp.14-17
今谷 明(2002)『信長と天皇 中世的権威に挑む覇王』(講談社学術文庫)
山路愛山(1915)『徳川家康』独立評論社, pp.393-395, p.439,
春藤与市郎(1931)『少年織田信長伝』,大同館書店, pp.3-4.
佐藤武(1942)『少年戦車兵物語』東亜書院, p.33, p.35-3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조선국민교육연구소편(1945)『織田信長』pp.151-152, pp.181-182,
赤木妙子(1991)「織田信長の自己神格化と嶋津牛頭天王」『史学』60(1), pp.127-140,
稲垣忠彦(2002)「藩校における学習内容・方法の展開」『帝京大学文学部紀要教育学』27, pp.1－22
黒田智(2002)「信長夢合わせ譚と武威の系譜」『史学雑誌』111(6), pp.1047-1071,
田中義成(1915) 信長と安土城」日本歴史地理学会(1915)『安土桃山時代史論』仁友社, p.113.
堀新(2002)「『平家物語』と織田信長」『文学』pp.101-113
沢井耐三「乱世の文学」久保田淳『岩波講座日本文学史』第７巻, pp.40-41.
吉田太郎(1966)「寺子屋における歴史教育の研究」『横浜国立大学教育紀要』6, pp39-59

❖ 투고일 : 2013.06.30
❖ 심사완료일 : 2013.08.12
❖ 게재확정일 : 2013.08.16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